

# ‘리딩뱅크’ 가른 917억... 쫓기는 신한, 바짝 붙은 K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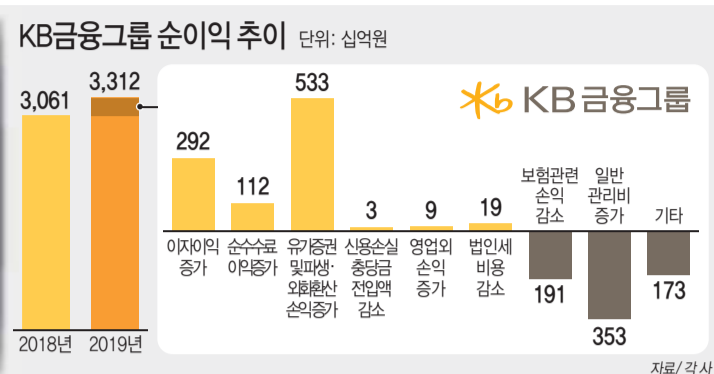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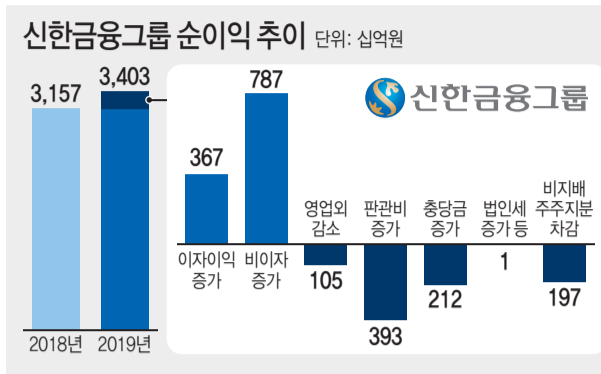
(순이익 격차)

**신한금융** 경상이익 여전히 견고  
2014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  
**KB금융** 작년 당기순익 3조3118억  
은행 최초 약 230만주 자사주 소각

신한금융그룹이 2년 연속 KB금융그룹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다. 다만 순이익 격차는 의미없는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올해 리딩뱅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9년 순이익, 신한금융>KB금융  
KB금융은 6일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3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일 신한금융이 내놓은 작년 순이익 3조4035억원에 단 917억원 차이로 리딩뱅크 자리를 내줬다. KB금융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5347억원이다. 은행 희망퇴직 비용이 1254억원(세후) 반영됐고, 보험실적이 부진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성장성 둔화와 예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제고할 기회를 모색하겠다”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은 신한금융과 KB금융 모두 늘렸다. 신한금융은 2019 회계연도에 대한 보통주 배당을 전년 대비 250원 증가한 1850원으로 결의했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대로 확정된다면 보통주 배당성향은 약 25%, 배당 시가 수익률은 약 4.1% 수준이다

KB금융 역시 전년 대비 290원 늘어난 주당 2210원 배당기로 했다. 배당성향은 26%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개선됐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은행지주사 최초로 약 23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으며, 배당정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견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대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우량대출 위주의 질적 성장과 순이자마진 관리, 비이자이익 부문 실적 개선에 주력한 결과 매우 견조한 이익체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3조4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50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경상이익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은행부문에서는

시장금리 영향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하락 기조에도 자산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했으며, 비은행 부문 역시 비이자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으로 그룹 실적 개선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점검승부 예고... 신한·KB, 모두 배당 ↑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지난해 실적 격차가 사실상 의미없는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신한금융과 KB금융이 점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인수합병(M&A)에 따라 서로 판세가 바

뀔 수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여건을 감안해 자산 성장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신한금융 노용훈 부사장은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며 “원화대출은 3%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KB금융의 올해 경영전략 방향으로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KB금융 김기환 부사장은 “올 한해 각 계열사별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M&A를 통해 그룹

## 작년 주택연금 가입자 1만명

HF공사 평균 월 수령액 101만원  
지난 연말까지 가입자 71034명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한 신규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 지난 한 해 동안 주택연금에 1만982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7만 1034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로,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700만원이었다. 평균 월수령액은 101만원이다.

HF공사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경제협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토록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1분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HF공사는 지난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조정,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준 대비 최대 4.7% (평균 1.5%) 증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소득증대와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 올해 첫 신종자본증권 4000억 발행

우리금융지주는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본증권은 국내 금융지주사가 올해 발행한 첫 번째 신종자본증권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9일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증권신고서 신고금액인 2500억원 보다 많은 5550억원의 유효수요가 몰려 15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발행금리는 3.34%(스프레드 192bp)이며, 5년 후 중도상환이 가능한 영구채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자기자본 비율(BIS)은 약 17b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영 기자 hong93@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우리금융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스프레드로 발행에 성공했다”며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자본적성 강화와 출자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우리금융지주 2조3500억(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우리은행 후순위채 3000억, 외화신종자본증권 5억5000만 불을 발행해 왔다.

## 신한銀, KBO 선수들 자산관리 돕는다

선수·코칭스태프 대상 금융서비스  
자산관리 상담·세무, 법률 자문 등  
PB팀장 1대1 전담케어,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KBO와 KBO 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대상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KBO 리그 소속 프로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상담 및 세무·법률 자문 서비스 ▲구단 및 선수 대상 자산관리 세미나 ▲PB팀장을 통한 1대1 전담케어 서비스(거래 조건 충족 시) ▲거래 수수료 우대 및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KBO 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들이 경기에만 전념



6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디지털개인부문 박우혁 부문장(오른쪽)과 KBO 류태환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해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신한은행의 우수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KBO 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프

로야구의 발전과 야구팬들의 재미있는 경기 관람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한화금융계열사, 쌍방향 성과관리체계 도입

주로 IT, 스타트업서 사용하는 OKR

한화생명 등 한화금융 계열사가 새로운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성과관리체계인 ‘OKR(Objective and Key Results)’은 주로 IT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사용돼 왔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포춘 500대 글로벌 기업의 25%가 실행하고 있다. 특히 40명의 소수 조직이었던 구글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 것으로 알려져 있다.

OKR은 기존 성과관리지표인 KPI에 비해 스피드를 최대한 끌어 올렸다.

KPI는 연 단위 평가인데 비해, OKR

은 짧게는 주, 길게는 분기 단위로 목표 관리가 가능하다. 대내외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 디지털 혁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표로 평가 받고 있다.

또 OKR은 회사가 먼저 목표를 정하면, 부서와 직원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쌍방향 방식이다.

반면, KPI는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표로서, 주로 하향식(Top-down)으로 목표 수립이 이뤄진다.

한화금융 계열사는 OKR 진척도를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 시스템도 구축한다. 운영 전담조직과 코치를 양성하고, 중간점검 및 리뷰를 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NH농협銀

### ‘NH멤버스’ 1주년 이벤트

NH농협은행은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NH멤버스’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다음달 4일까지 ‘미션 스탬프’ 이벤트를 실시한다. NH멤버스 앱에서 ‘미션 스탬프 도전하기’를 신청한 후 농협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사용시 생성되는 미션 스탬프 5개를 모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501명에게 ▲1등 100만 NH포인트(1명) ▲2등 5만 NH포인트(100명) ▲3등 1만 NH포인트(400명) 등 총 100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도전! 골드바를 잡아라!’ 이벤트는 오는 29일까지다.

/안상미 기자